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34, Daniel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예를 들어, 어떤 점수를 받았든 A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응시하려는 첫 번째 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번 에세이 재응시에서는 75점을 대체하는 85점을 받습니다. 재응시에서 60점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연습에 불과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했나요?
좋아요. 어쨌든 오늘이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물론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Gordon에서 미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그들은 부자이고, 재미있는 것은 퀵드의 밴드뿐만이 아닙니다. AJ의 오케스트라도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퀵드에 있는 밴드에 반대할 생각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 우리만의 음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번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운 아버지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우리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밀어내는 맹렬한 바람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인해 너무 크다고 느끼는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성화해 주세요. 그들을 위로하고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포로 생활의 두 번째 선지자인 다니엘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또 다른 유배의 선지자는 누구였나요? 에스겔. 에스겔, 훌륭해요.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땅 밖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약간의 리뷰를 한 다음 다니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집어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사라, 그게 질문인가요? 응.

글쎄요, 에스겔은 매우 특이한 예언적 인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 전체의 묵시적인 성격에 얽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빌론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니다. 환상적 경험이나 그런 종류의 것 말이죠.

나는 이미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상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성전,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뒤로 움직이는 일이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도를 작성하기 어렵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바벨론에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명의 대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억하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좋아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지난번에 에스겔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특이한 장르의 특징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묵시문학은 신약성경을 읽고 성 요한의
 계시를 연구할 때 소개되었던 묵시문학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다니엘을 생각할 때 이러한 특징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메모한 내용을 드래그해 보세요.

묵시문학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메리. 좋아요. 먼저 첫 번째 것을
 잡겠습니다.

선이 승리할 때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떠오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기
 때문에 먼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엄청난. 꿈, 환상, 그리고 물론 다니엘서에는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상징이요?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 아마도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
 무엇보다 상징이 중요합니다.

숫자의 상징적 사용은 제가 그 시점에서 실제로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 또 뭐 있어? 오른쪽.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정말 환상적인 이미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7장을 읽고 그 짐승들에 관해 읽으면서, 그것은 동물원에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내 말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나는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은 이 생물들의 묘사가 정말 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화 같다고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해서, 몇 가지 요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묵시문학의 대부분, 사실 성경 본문, 정경 본문 이외의 모든 내용은 가명이 될 것입니다. 즉, 이름이 지정된 생물이나 작가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다루게 될 것 중 하나는 다니엘도 가명으로 쓰여졌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교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 구약성서에서 벗어나 5년 후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싶다면, 구약성서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더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봅니다. 일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예는 무엇입니까? 그래, 사자들의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들을 삼키지 않는 풀무불 속에.

그리고 실제로 그 맥락에서 그들과 함께 걷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네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또 뭐야? 이 특정 장들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른 예시가 있습니까? 사라? 왕은 약간의 살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자들은 모두 현자들을 구하고 싶나요?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박사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과 환상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영역, 사람의 보존의 영역, 사자 굴과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야생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매우 분명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봅니다. 럭키, 그게 질문인가요? 손 들어? 전적으로.

네, 확실히 왕과 왕의 마음 위에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글쎄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과 관련된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참아주십시오. 다니엘서는 첫 번째 성서의 몇 권의 책 중 하나이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용어 외에 아람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것은 히브리어와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와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였으며 당시 제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의 대응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가더라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행을 할 때 50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축복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50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꼭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서 5개, 6개의 언어를 아는 상점 주인들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독일어, 아랍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업이 시작된 곳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링구아 프랑카는 영어입니다. 당신은 거의 어디서나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링구아 프랑카는 그리스어였는데, 신약성서의 전파와 복음 메시지의 측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와 자매언어이며 관계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면 아람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람어로 된 장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아, 우연이 아니라, 이 부분을 아람어로 쓸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실제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에스라서를 읽을 때, 에스라서의 일부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8장부터 시작합니다. 8장부터 12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고안된 환상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계속적인 억압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마도 억압이 커질 것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는 앞을 내다보고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그 사이에 2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다니엘에 대한 예언과 다니엘이 그곳 법정에서 봉사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며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7장은 환상입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의 나라들, 그리고 주로 억압받는 세계의 나라들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네 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7장은 서로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훨씬 더 보편적인 글로벌 초점이므로 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링구아 프랑카입니다. 그런 다음 안쪽으로 이동하면 2, 7, 3, 6, 4, 5도 있고 거기에도 멋진 작은 패턴이 있습니다.

3장과 6장은 박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 히브리어 이름을 원하신다면,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어진 시점에서 통치자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그런 다음 여기 우리 종류의 중심인 4장과 5장으로 이동하면 두 명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대담하게 스스로를 설정하는 두 통치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2장, 3장, 4장의 순서를 잠시 살펴보겠지만, 4장에서 그는 자신이 성취한 일들에 대해 꽤 자랑스럽고 오만합니다. , 꿈에서 애도한 후 그는 실제로 잠시 동안 그의 사람의 놀랍고 끔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장에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 느부갓네살의 자손 벨사살이 대담하게도 성전 기구들을 사용하며 거기 앉아서 잔치를 베풀며 마시며 은금 등으로 만든 신들을 숭배하니 그렇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일광을 두려워하는 무엇을 보나요? 여기 내 손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벽에 적힌 글씨죠? 그리고 물론, 왕은 잿빛으로 변하고, 그 장의 끝에서 그는 죽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메시지 외에 정말 멋진 문학적 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펴볼 비전과 비전 그 자체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배경 작업이 있습니다. 좋아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신, 이 책들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사람이 생각나나요? 요셉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정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셉을 매우 연상시키는 외국 법정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선지자이다. 나는 그가 이스라엘 이름, 유대 이름, 히브리 이름, 그리고 바빌로니아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니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본문의 여러 지점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읽으셔도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들의 첫 번째 물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때가 기원전 605년이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Gordon College에 와서 학장과 대통령 명단을 원하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그는 그들을 원했고, 따라서 다니엘은 고귀하고 총명하며 신체적 결함이 없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내 말은,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추방의 물결 중 하나이며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어딘가에서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망명하면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장 4절 청년들은 육체에 흠이 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학문에 재능이 있고 학식을 잘 알고 이해가 빠르며 왕궁에서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소년들입니다. 왕의 청지기인 그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그들은 왕의 상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지 거기 앉아서 언어와 문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언어와 문학은 문화입니다. 그들은 문화의 전달자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바꾸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좋아요?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제가 없다고 잠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할 때 아마도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 맥락에서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십시오. 질문을 던지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에서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우는 모든 내용에 쉽게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의 이름 중 하나가 포함된 이름을 부여받았고, 벨은 신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름은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는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도 나만큼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어와 문학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문화를 구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재형성되어 유대인의 유산과 유대인의 신념을 잊어버리고 제국의 선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시민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심지어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을 거부 하고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우리는 술과 좋은 고기 등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당신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면, 당신은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장을 다니엘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소개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됩니다. 우리는 이야기 부분을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자랐다면 그들은 주일학교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은 읽기 쉽지만, 읽으면서 그러한 확신이 반복적으로 입증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우리가 기꺼이 죽기를 원하지만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절하고 절하는 이 흥미로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 좋아요, 그것은 오늘 제가 할 작은 설교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설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역사에 조금 더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을 다루는 기초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약 300년 후에 다니엘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까? 문제입니다. 400년 후의 문제다.

그리고 관점은 의도적으로 복수형 입니다 .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세트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법정에서 살면서 예언하고 일했던 기간을 폭넓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배시킨다면 그것이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그는 청년이다. 그 사람은 당신과 비슷한 나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어리기도 합니다. 그의 봉사 기간을 주목하십시오.

좀 겁니다. 60년이 넘었습니다. 539년은 고레스 대왕이 도래한 때이며, 우리는 다니엘이 적어도 고레스 통치 3년째에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이사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지배에서 페르시아 지배로의 전환, 많은 트라우마와 격변, 격동의 시기. 다니엘은 계속해서 견고한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그는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동안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두 후계자입니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보니두스는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고대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는 비정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달의 신을 숭배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했습니다. 별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에서는 그들의 주요 신이 마르둑이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와 함께 왕이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셨다면 아시다시피 9장과 6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0장부터 12장은 여기의 주요 인물인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입니다. 그런데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 수많은 잉크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확고하고 빠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한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 후보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 권력이 순조롭게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점에는 큰 이직률, 많은 끔찍한 일,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서가 끝난 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미래의 시대.

네 왕국은 특히 2장과 7장에서 매우 포괄적인 환상이고, 그 다음 8장과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왕국은 분명히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빌론 다음으로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두 가지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옵니다.

분명히,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에 이 지역 전체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니엘 시대보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다소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약 20년 동안의 격변을 겪은 후 그의 장군 4명이 그의 왕국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면 네 명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두 가지. 나는 이것에 대해 당신을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싶은 두 사람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 착륙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이집트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앞으로 3세기 이상 이집트를 통치할 것입니다.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구약의 아람 또는 시리아로 알고 있는 시리아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확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가 차지할 영역이다. 왜 중요한가요? 글썄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래 전, 1월 어느 날 우리가 했던 강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소규모의 정착된 공동체가 이 두 세력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평소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영역에 머무르는 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앞뒤로 싸움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 메시지를 통해 앞을 내다볼 때 그 기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며 그들이 알기에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여기 이 특별한 통치자로부터 왕조 전체를 계승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것은 셀레우코스 왕조이고,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는 그의 신민들을 헬레니즘화하려는 일종의 광범위한 제국 차원의 시도로 유대인들의 할례를 막고 그들이 희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희생하게 하려는 대대적인 시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67년에 그는 성전을 모독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십시오.

마치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역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역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에 내가 하프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그리스 정교회의 성소는 자신들의 성소를 매우 진지하게 여기기 때문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모독하고, 휘장을 부수고, 성상을 빼앗고, 버리고, 부수고, 깨뜨립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안티오코스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가졌을 사고방식이나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행사입니다. 다니엘은 11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분명하며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측면에서 보면 로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원전 63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미 행진에 나섰습니다.

사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로마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길에 그를 막고 돌아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가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성전에 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흥미로운 정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로마인들은 천천히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얻었나요? 사진을 얻었나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러한 비전에서 훨씬 더 앞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은 확실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2장과 7장은 네 왕국, 바벨론, 메디아-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모두 설명하고, 8장과 11장은 세 번째 왕국인 그리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응, 트레버.

그럼, 그들이 유배에서 돌아올 때 어떤 종류의 평화의 시기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지금은 유배 상태인데 정말 안 좋은데, 돌아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냥...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과연 평화로운 때가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에 이 일을 조금씩, 더 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을 때 이집트는 198년까지 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것을 통제할 때 상황은 꽤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유대인을 다른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헬레니즘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매우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몰아낸 후에야 기원전 2세기에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이 분명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응, 케일린. 그들은 실제로 몇 년도에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땅으로? 그들은 539년에 키루스 밑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글썄, 조금만 더 계속해보자. 몇 장의 사진.

이 내용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아요?

언젠가 옥스퍼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분들을 위해, 갈 때 꼭 봐야 할 또 다른 대영박물관 유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나보니두스 원통이고 그것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나보니두스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작은 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으로 통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달의 신 등을 숭배하며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도 또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5장에서 다니엘은 왜 왕국에서 세 번째로 임명되었습니까? 왜 두 번째는 아닌가? 그 이유는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공동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왕국에서는 셋째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흥미로운 역사적 확증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연대기는 그의 통치 기간의 사건을 실제로 설명하고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연대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페르시아의 미디어 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더 큰 지정학적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요점이 있습니다.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이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많은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구약성서의 평행선에서 읽은 바 있는 마르둑을 그들의 최고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니두스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영상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하던 모든 일이 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 책은 언제 쓰여졌나요? 책은 언제 쓰여지나요? 음, 전통적인 날짜, 전통적인 날짜는 다니엘의 생애 중 어느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세기, 어느 때는 500년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날짜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들이 보는 문제는 이사야의 경우와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의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는 한 세기도 더 앞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무모하게 언급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글썄요, 다니엘도 같은 시각으로 보입니다.

8장과 11장에서 다니엘은 성경 외의 자료, 특히 월요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과 북동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전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세푸스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그것은 특히 11장과 일치합니다. 이제 11장은 비밀스럽게 제시됩니다: 북방 왕, 남방 왕, 북방 왕, 남방 왕. 이름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펼쳐지는 것을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대부분의 다니엘 학자들, 심지어 상당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2세기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가 성전을 더럽힌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특별한 세계관이군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말한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특정한 예측 예언을 가질 수 없다고 가정하도록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복하며 말합니다. 아, 글썄요, 사실이 일어난 후에 기록해야 하는데, 아니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전지하시고 끝부터 시작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 20분 전에 언급한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매우 사악한 왕조인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들의 신념과 종교를 꺾어내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상당히 심오한 약속을 주십니다. 특히 다니엘 12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전통적인 날짜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나를 혈거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날짜를 잡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이 본문이 바벨론의 내용을 마치 알고 있는 듯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놀람, 놀람. 처음 네 장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며 법원 규약에 대한 매우 명확한 세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언어는 언어의 예를 연대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측면에서 항상 약간 모호한 문제이지만, 제안에 따르면 4세기 안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원전 2세기에 나온 아람어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특히 아람어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주요 요점은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Gordon Hugenberger 로부터 직접 훔친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의 장학금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는 더 넓은 문화적 내용을 읽을 때 특히 외경, 구약 외경에 실제로 있는 책을 언급합니다. 유딧이나 토빗과 같은 것들은 영웅도, 영웅도, 유대인 영웅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법원의 구성원이자 법원의 총애를 받는 구성원으로서 작성된 것입니다.

대신 Judith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읽어보셨다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녀는 주요 인사를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그의 머리를 잘라 바구니에 담습니다. 영웅은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에 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정과 함께 일하고 있고, 법정에서 이야기의 영웅입니다.

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여러분이 이 자료를 접하게 된다면 이 자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학 전공자라면 성경학 전공자가 그럴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도 언젠가 교회에 앉아 계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모릅니다. 계속할 준비가 됐나요? 괜찮은.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책의 이야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우선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다니엘이 설명하고 해석한 환상에서 '무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상. 같은 단어.

아람어도 같은 말이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조각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은 유희 상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은 금머리이시니이다. 그런데 금머리이신 왕이여,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가서 자신을 온전한 조각상,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절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3장은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장은 페르시아 궁정을 비웃는 내용입니다. 그걸 잡았나요? 그 물건 목록이요? 모든 수금과 하프 등이 울릴 때, 모두가 절을 하고, 그 장엄한 기도문을 여러 번 통과합니다. 수사학입니다.

법원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 흥미로운 점은 Hananiah, Mishael, Azariah가 그들의 대답으로 그 말을 바로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비전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금의 머리, 바벨론. 은 상자와 무기, 메디아-페르시아.

청동으로 만든 배와 허벅지, 그리스. 철로 된 다리, 철과 진흙으로 된 발, 로마. 로마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묶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배치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석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2장 45절에서 이것이 산에서 뜨려져 사람의 손으로 눌러지지 아니한 바위의 환상의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꿈은 사실이다. 물론 그 반석은 다른 모든 왕국을 흩어버릴 것이며, 참으로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물론, 이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부갓네살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만 주목해 주십시오. 2장부터 3장까지 못 얻어서 우상 전체를 쌓아올린 거죠.

그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구출되는 것을 보고, 앞서 말했듯이 네 번째 인물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을 걷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4장에서 이러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야생 생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그는 그것을 얻게 되고, 그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를 다니엘의 환상으로 인도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환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그것이 묘사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이 우상숭배에 사로잡혀서 보는 신상과 우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포식자의 관점에서 제시됩니다. 이들은 그의 백성을 억압하는 포식 세력을 대표하는 야생 생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7장은 바로 8장으로 이어지며, 이어서 히브리어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약탈적인 짐승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왕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선 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느부갓네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7장 4절, 날개가 찢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땅에서 들러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느부갓네살이 한동안 동물과 같은 짐승으로 타락한 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이 특별한 환상에서 그 점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둘째 짐승(7장 5절)은 한쪽 옆구리를 들고 있는 곰처럼 생겼는데, 이는 메대-페르시아의 이들 중 하나가 아마도 다른 것보다 더 강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배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인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마도 동물원에서 보는 표범을 떠올릴 것입니다. 표범은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다지 무섭지도 않습니다.

표범은 끈기가 정말 강해요. 노바를 보면 표범이 이해되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사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범은 비열한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열한 생물이지만 작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것이고 그들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에는 새와 같은 날개가 네 개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상하고 환상적인 만화 같은 생물이고, 4성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이어받은 사람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는 8장과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에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섭고, 무섭고, 매우 강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로마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대표합니다.

커다란 철 이빨이 희생자들을 부수고 잡아먹고, 남은 것은 모두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뿔은 열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뿔은 권력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뿔은 일종의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전의 다음 측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습니다.

9절을 보니 보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바위를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분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렇죠? 왕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대부터 늘 계신 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그분의 보좌는 불타오르고, 그분의 바퀴는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반향을 듣고 계십니까? 에스겔 1장, 보좌 환상, 바퀴, 불. 다니엘의 환상도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이 환상의 두 번째 단계이며, 그는 지금 바로 하늘의 뜰, 하늘의 뜰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 강이 그의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에게 참석했습니다.

만만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정이 자리를 잡았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심판의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위대한 재판관이시며,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 온 이 모든 왕국에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관해 할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절과 14절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붙잡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기회입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지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같나요? 예수께서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이렇고 다른 증인은 저와 다른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야바는 좌절하고 마침내 “나는 당신에게 맹세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매튜입니다. 여기에 있나요? 예, 26:64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이 구절은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물론 가야바는 자신의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신성모독을 외치며 자기 옷을 행굽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암시를 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게 다가가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4절은 제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의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였느니라. 그의 통치권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권이니라. 그분의 왕국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왕국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기능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헤드린과 가야바 앞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고 제가 말했듯이 시편 110편의 암시와 함께 연결하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미뤄두라고 제안했는데, 그것이 에스겔이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트레버? 네, 그것은 에스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언급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해 이 이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함께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랐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시간이 없는 7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서 7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 자신이 통치권과 능력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글썄요, 알아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작업을 더 수행해야 하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8장과 11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 20분 전에 말했듯이, 이 장들은 특히 그리스가 이곳을 통치하던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먼저 그는 숫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메디아-페르시아, 8장입니다. 매우 짧지만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 5절에 갑자기 눈 사이에 뿔이 난 염소가 서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는 숫양을 공격합니다.

그 자신도 꺾이고 하늘 사방 바람까지 자라는 두렷한 뿔 넷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다른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은 작게 시작되었으나 남쪽과 동쪽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커져갔습니다. 물론 나는 그 뿔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8장인데 매우 짧습니다.

11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 왕, 북방 왕, 남방 왕, 북방 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남쪽을 침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서부 해안 지역의 선박들이 그를 반대할 것이다. 저 사람은 누구야?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쪽에는 어떤 주요 세력이 있습니까? R. Rome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한다는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로마 장군에게 도전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쪽 언덕의 배들이 그를 반대할 것이다.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돌이켜 거룩한 언약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일어나서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할 것이다

그들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일을 세울 것이다. 복음서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는 그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표적에 관해 말할 때 다니엘에게서 나온 이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이러한 예표를 살펴보십시오 .

그 사이에 하나는 8장이고 다른 하나는 11장입니다. 9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훨씬, 훨씬, 훨씬 더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는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대-페르시아로 바뀐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란스러운 시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9장 21절,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는 동안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브리엘은 그냥 들어와서 '글쎄, 내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러 왔다고 말한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그치고 죄를 그치며 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봉하며 가장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였으니 이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칠 일이라 하였느니라 . 우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 77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글쎄, 그것은 7년의 70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25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반포되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일을 알고 이해하라. 통치자가 온다.

7개의 7개와 62개의 7개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 70개 중 69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있는 때부터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전개될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었다고 잠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 세기와 사실, 그 이후 세기에도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요세푸스는 메시아를 가장하는 자들이 10,000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과장한 것 같죠? 그러나 그는 이 기간 동안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예언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점에서 뭔가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법령을 작성해야 하는지, 62와 7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실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기에 오고 계십니다.

물론 문제는 그들이 올바른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인이 되어 로마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단절되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끊어질 것이다 (26절). 그것은 그들의 시스템에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곱 날 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리라. 멸망케 하는 자가 가증한 것을 성전 날개에 두리라.

다시 말하지만, 성전의 맥락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푸는 방법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의 정체에 대해 많은 잉크가 쏟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시작점과 끝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잉크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들어맞는가? 62는 무엇입니까? 69는 무엇입니까? 70주차는 언제인가요? 아직 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것들은 모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지자 강좌를 수강하세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말해야 합니다. 12장. 우리의 모든 예언서의 패턴에 맞춰 우리는 놀라운 12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은 어렵고 도전적인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했듯이 이 중 일부는 마지막 때까지 봉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수와 이 일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떠나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중간쯤에요. 환난의 때가 이르리니 그 때에 네 백성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 네 백성이 구원을 얻으리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무리가 깨어나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깨어 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깨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바로 위로 이동합니다.

바로 올라가세요. 바로 일어나세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거기서 고난을 받느니라 별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자니라

이것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약속이다. 이것이 이번 주와 오늘 우리를 마감하는 약속입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식일 샬롬. 이번 주말에는 좋은 음악 들으러 가세요.